

음담패설 한토막

새해 첫날 동해안 해돋이 관광도중 일행중 한명이 물었다.

“차 안에서 부인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느닷없는 카섹스 얘기가 나오자

모두 당황하면서 주고 받은 이야기

“글쎄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아니 그렇다면 해돋이 구경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선 화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중을 사로잡는 웅변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순발력있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는 재주꾼도 있다.

중구난방의 분위기를 논리 정연한 화술로 정돈, 집약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달변가도 존재하며 진담섞인 농담으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재답이나 덕담으로 무미건조한 삶에 윤기를 더하기도 하지만 때론 비꼬는 말투로 상대방을 공략하여 상대적 우위를 노리는 것이 바로 언어다. 언어는 구사하는 기법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정립되기도 한다.

性人은 聖人이 될 수 없다

음담패설이란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말한다. 어차피 생식기나

섹스에 관한 어휘나 표현은 거의 모두 상스럽고 저급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음담패설이란 섹스에 관한 모든 표현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섹스는 음사(淫辭)와 음분(陰奔)이라는 본질을 피해갈 수 없고 음탕한 정동(情動)은 곧 인간의 저급한 감정으로 구획되기 때문이다.

흔히 ‘늬우면 양기가 입에 모인다’라고 한다. 실행력이 쇠퇴한만큼 그 대체행위로 섹스에 관한 입심이 세진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섹스에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 섹스가 반드시 은폐시키거나 매복시켜야 할 비장(秘藏)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까닭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본능적 행위이며 신비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닌 일상의 생물학적 행위라는 사실도 아울러 깨닫게 되는 현안(賢眼), 바야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나 할까?

섹스에 관한 언행만큼 표리의 간격이 벌어진 본능행위도 없다. 물론 문화적 배경이나 종족, 종교에 따라 성습관이나 풍습은 다르다. 또 성관이란 섹스에 대한 시각, 언론이나 성경험 등에 의해 변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란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본능인 동시에 쉽사리 치워 놓거나 양보하기 어려운 속성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흔히 동물성을 제외시킨 인간의 속성만을 ‘인간성’이라는 단어로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표현하는 일이 많다.

도덕과 윤리의 규범에는 동물성의 진수랄 수 있는 성(性)을 철저히 배격하는 내숭적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性人)은 성인(聖人)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그릇된 시각이 오히려 많은 오해와 비리를 부추긴다.

인간성의 진짜 색깔이 동물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섹스에 관한 언행은 그 원래의 색깔을 은폐시켜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금방 죽을 것 같이 열광하던 밤이 사라지고 한 곳으로 밀쳐진 채 팔시를 받는 섹스. 인간의 철저한 이중성은 이러한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음탕한 섹스의 알맹이를 윤리의 외피로 포장한 채 인간사회가 역동의 유전(流轉)을 계속하게 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섹스야말로 인간성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암컷과 수컷이 이루는 사랑의 하모니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인간성의 극치를 이루는 품위(?) 있는 음담패설(淫談悖說) 한토막을 소개한다.

비록 음담(淫談)으로 비하되는 패설(悖說)이라지만 작자의 번쩍이는 재치와 진지한 인간성이 돋보이는 높은(?) 수작(秀作)이기도 하다.

서울 토박이 남자와 경상도 출신 처녀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두사람만의 감미롭고 황홀한 밤. 가벼운 샤워로 끈적거리는 피로의

찌꺼기를 씻어낸 후, 두 남녀가 폭신한 침상에 나란히 누웠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의 외곽지역을 더듬으며 부부의 문을 여는 역사적 대담사를 시작했다.

서툰 초보 운전자인지라 혹시 깨질새라 사뭇 조심스럽게 열과 성을 쏟아 신부를 낙원으로 안내하는 순간, 느닷없이 여자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

“존(좋은) 냄새 나네에”

(어? 조금 전, 구석구석 씻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냄새라니?)

남잔 재빨리 욕실로 달려가 벌써 일어나 보채며 설치는 약기를 정갈하게 다시금 씻어냈다. 창피와 모멸의 누더기를 기운 다음, 여체의 빅 쓰리(Big 3)를 공략하며 재도전을 시작!

하지만 이게 웬 변고? 발갈게 젖은 얼굴로 게슴츠레 감은 눈을 살며시 뜨면서 또다시 튀어나온 신부의 한마디.

“정말 존냄새 나네에..” 이제 사뭇 막힌 소릴 내며 열기면 음성까지 동원하는 게 아닌가? 순간, 웅수철처럼 나가떨어지는 남자. 가슴속에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 그리고 이내 등을 돌린 채 굴욕을 곱씹으며 그 길고 긴 첫날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의 창문을 뚫고 들어온 한 응큼의 찬연한 햇살.

아무 말없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식사에만 여념이 없는 신랑을 바라다보던 신부가 또 한마디.

“씹도(씹지도) 않고 묵어여?”

음담패설은 섹스의 양념

이쯤 되면 정말 수작(秀作)이랄 수 있다. 관습화된 지방 방언과 말투를 엮어 섹스와 연결시킨 번쩍이는 재치가 돋보인다.

가히 삭막한 분위기를 한순간 녹여주는 청량제 구실을 하기도 한다. 기묘년 첫날의 해맞이를 위해 동해 바다로 향했다. 유독 고달팠던 묵은 해를 지우고 새해부터는 뭔가 신명나는 일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활력의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험준한 한계령 길에 들어서자 일행중 한분이 무료한 시간 사이를 뚫고 불쑥 묻는다.

“차 안에서 부인과 해 본적 있습니까?”

황당한 순간이다. 부부가 함께 한 차량 내부에서 느닷없이 카섹스 얘기를 꺼내다니...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구.

“글쎄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말끝을 흐리며 슬쩍 눈치를 살핀다. 질문한 분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히죽대며 웃는다.

“아니, 그렇다면 해돋이 구경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까? 저는 매년 이맘 때면 마누라랑 차 안에서 해보는데요. 차량 밖으로 나가 새해를 맞이하기엔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말의 유희치곤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이같은 음담의 효용 가치를 무조건 무용한 저질로 매도할 순 없다.

음담패설이라는 저급한(?) 스토리도 때론 훌륭한 섹스의 양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7